

관세청,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검사 '2차 저지선' 최초 마약적발 유공자 특별성과 포상

관세청은 5월 28일(목) 안양우편 집중국에서 '국제우편 마약검사 2차 저지선' 구축 이후 최초 마약을 적발한 엑스레이(X-Ray) 관독·검사 직원들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.

'마약 검사 2차 저지선'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(X-Ray) 관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로, 동서울·부천·안양·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5개 주요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.

관세청은 이날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최초로 3건, 1,159.3g의 마약을 연이어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(안양 우편집중국 근무) 한세희 주무관 외 1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.

또한,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업한 우정사업본부 현장 직원들에게는 격려금을 전달하여 현장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였다.

관세청은 앞으로도 탁월한 정책 성과를 낸 유능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 등 보상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이병진 (042-481-76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석원 (042-481-1136)